■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17-455.
http://doi.org/10.17948/kcs.2021..91.417

1960년대 초반 동북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민적 정체성의 재정립*

—리근전의『범바위』초판본을 중심으로—

이해영(李海英)**

목 차

1. 들어가기
2. 1960년대 초반 조선족의 역이주와 흔들리는 국경
3. 소거된 조선반도와 재정의된 고향을 통한 경계 구축
4. 조선족의 이념적 선택의 필연성과 국민으로 통합되기
5. 참군과 토지개혁을 통한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의 획득
6. 결론

국문초록

리근전의『범바위』는 광복이후 전개된 중국의 국공내전 일명 해방전쟁에서의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를 다룬 혁명서사로서 1958년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대량적 역이주로 인해 당시 조선족 사회가 처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연변사회에서의 조한(朝漢) 두 민족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나름의 문학적 대응이었으며 리근전은 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

* 本文系国家社科基金一般项目"当代朝鲜族文学中的革命叙事与国家认同研究(批准号：16BZW179)"的阶段性成果.

** 중국해양대 한국어학과 교수.

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학적 대응의 하나는 조선반도에 대한 소거와 고향에 대한 재 정의를 통한 경계의 구축이다. 리근전은 소설에서 그 서사 전략으로 조선반도를 소거시키고 고향을 중국 내의 이주지로 재 정의함으로써 조선족의 이주민으로서의 성격을 지우고 국내의 소수민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 조선족 사회와 혈연적 유대를 갖고 있는 조선반도 사이에 경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경을 견고히 하였다. 다른 하나는 조선족의 이념 선택의 과정을 통한 국민으로 통합되기이다. 소설에서 조선족의 이념적 선택의 문제는 국공 양당의 대 조선인 정책의 우열을 통한 민족의 길 찾기와 조선족의 계급적 기초 및 조한(朝漢) 두 민족의 공동의 반일투쟁의 역사에 의한 필연적인 성격의 범주로 그려지고 있다. 세 번째는 참군과 토지개혁을 통한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의 획득이다.

이러한 문학적 대응에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반우파투쟁에 이어 민족정풍과 함께 연변전역을 휩쓸었던 1959년의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등 당시의 엄혹했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용기 있는 '민족적 발화'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쩌면 리근전 개인의 용기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중국공산당과 리근전이 소속되어있던 조선족 간부층의 모종 교감에 의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제어: 조선족 문학, 리근전, 『범바위』, 혁명서사, 국민적 정체성.

1. 들어가기

1962년 출간된 리근전의 첫 장편소설 『범바위』는 광복이후 중국의 국공내전 즉 해방전쟁시기 국민당 반동파와의 혈전을 다룬 조선족의 혁명서사이다. 소설은 광복 직후 중국 동북 지구가 놓인 정권 부재기의 혼란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국가 없음'[1]의 위치에 처한 조선인[2]의 위기적 상황과 방황 및

1)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11-36면 참조. 여기서 주디스 버틀러는 '국가 없음' 또는 '국가 없는 자'를 주로 난민을 통해 이해하려고 한 아렌트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민족국가의 내부와 외부에 모두 '국가 없음'의 상태에 처한 자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권리를 박탈당한 민족적 소수집단 혹은 수감된 자, 노예, 그리고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노동하는 사람들 등 여러 계층이 이에 속하며 국가 안에서도 얼마든지 국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19세기말부터 중국에 이주하여 무국적 상태에서 청조와 중화민국, 위만주국[위만주국은 멸망할 때까지 국적법을 만들지 못했다]을 거쳐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 놓인 중국 동북 지역 거주 조선인은 충분히 '국가 없음' 내지 '국가 없는 자'로 볼 수 있다.

그들이 직면한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공 내전의 와중에 그들 조선인 민중들이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선택하고 국민당과의 혈전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없음'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주선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이 작품을 1953년 출간된 김학철의 첫 장편소설『해란강아 말하라』와 함께 건국 초기 조선족이 갑자기 부여받은 강력한 국민국가의 통합 요구에 직면하여 스스로의 국가적 정체성의 혼란과 모호한 경계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중국의 국민으로 통합, 수렴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보았다.[3] 김학철의『해란강아 말하라』가 작가 스스로의 고백에 의해 당 선전부에서 준 임무에 의한 것이자[4] 작가의 정치적 의무감에 의한 것[5]으로 정작 작가의 주체적 감각과 역사적 안목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6]과는 달리, 특히 광복 직후의 정권 부재기의 혼란 속에서 동북 잔류 조선인의 '국가 없음'의 특수한 처지와 이념적 선택을 통한 민족 전체의 운명의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작가 리근전의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과 체험의 깊이에 기초한 역사적 감각, 예리한 통찰력이 주목되었다.[7] 또한 작품이 창작되고 발표된 시점이[8] 반우파투쟁과

2) 광복 직후 중국 동북에 잔류한 조선인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토지개혁 이전까지는 중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고 무국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들을 조선족이 아닌 '조선인'으로 지칭하였다.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중국 정부에 의해 부여된 명칭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전은 '조선인'으로, 건국이후는 '조선족'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 조일남,「중국조선족장편소설발전개요」,『문학과예술』, 2001, 145-147면; 리광일,『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3, 130-132면; 이해영,「1950-1960년대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의 두 양상」,『한중인문학연구』13, 한중인문학회, 2004;『중국 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출판사, 2006, 71-93면; 오상순,『중국조선족문학사』, 민족출판사, 2007, 21-223면.

4) 연변문학예술연구소 편,「김학철선생님과의 문학대화」,『김학철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318면.

5) 같은 책, 318면.

6) 김명인,「어느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초상」,『창작과비평』2002년 봄호, 창비, 2002.

7) 이해영, 앞의 글; 앞의 책, 71-93면.

8) 리근전의 회고에 의하면『범바위』는 1958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962년에 출간한 것이다. 리근전,「『고난의 년대』를 쓰게 된 동기와 경과」,『문학과예술』,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기관지, 1983, 51면.

대약진,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등 중국 전역이 바야흐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들기 시작한 시기로 '민족'에 대한 발화 자체가 위험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여 그러한 와중에도 조선족이 서야할 위치를 고민하고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을 확인하고자 한 리근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였다.[9] 『범바위』의 창작동기에 대해 리근전은 "흔히 사람들은 조선족은 조선에서 살 수 없어 쪽박 차고 중국에 밥을 빌어먹으러 건너 왔다고 하는데 이는 편면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여러 민족과 함께 닦아 놓았고 동북에서 벼농사기술도 전파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이러한 력사를 통하여 민족의 넋을 지키고 노래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0]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회고가 1980년대에 이루어진 기억의 재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작가 리근전이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당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가 1957년의 반우파투쟁 중에서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동만 조선인의 항일 투쟁사"를 다룬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진행했던 것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민족적 발화'를 단지 리근전의 내면 깊은 곳에 은밀히 깃들어있던 민족의식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반우파투쟁에 이어 민족정풍과 함께 연변전역을 휩쓸었던 1959년의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등 당시의 엄혹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리근전은 무엇 때문에 굳이 이러한 "민족적 발화"를 했던 것일까? 당시 중공 연변조선족 자치주 당 선전부 부부장의 요직에 있었던 리근전으로서는 '민족'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발화가 어쩌면 일종의 정치적 생명을 건 모험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본고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발하여 리근전의 '민족적 발화'의 사회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러한 '민족적 발화'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국민적 정체성으로 수렴되어갔는지? 그

9) 이해영, 「60년대 초반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의 내면화」,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중국 조선족의 선택과 조선인 간부들의 역할: 조선족의 장편소설과 조선인 간부들의 회고록과의 대비를 통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10) 리근전, 「력사를 통한 민족의 넋을」, 『문학과예술』,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기관지, 1985, 71-72면.

내적 논리는 무엇인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2. 1960년대 초반 조선족의 역이주와 흔들리는 국경

『범바위』가 창작, 발표되던 1958년에서 1962년에 이르는 시점은 건국으로부터 10여 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 10여 년간, 조선족은 건국 전야의 이중국적 논란[11], 다조국론 논쟁[12] 등을 거치면서 드디어 연변에 조선족 자치구[13]를 설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가고 있었다. 한때 건국 1년 만에 폭발한 조선전쟁[14]에 많은 조선족 청년들이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입대하거나 담가대원, 간호사 등으로 조선 전장에 나가기도 했으나 휴전과 함께 대부분의 조선족 청년들이 중국으로 귀환하였다. 이는 조선족들이 어느덧 중국을 '삶의 터전'으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야 할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조선족의 국적문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56

11) 국공내전시기, 동북 근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된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을 앞두고 동북 잔류 조선인의 국적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고 이에 대해 당시 중공연변주위서기 유준수는 동북 거주 조선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을 성위와 중앙에 건의하였고 당중앙의 비준을 받아 한동안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해영, 「건국 초기 동북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 『대동문화연구』 11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399면; 유준수, 「조선족인민들속에서」, 『승리(조선민족발자취총서5)』, 민족출판사, 1992, 711면.

12) 한때 조선족의 인텔리 층에는 '다조국론'이 만연하였는데 1948년 12월, 길림성에서 소집한 민족사업좌담회에서 일부는 조선인의 조국은 여전히 조선이라고 했고 일부는 "무산계급의 조국은 쏘련이고 민족의 조국은 조선이며 현실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논리를 폈다. 주덕해는 '다조국론'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하였으며 한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의 조국밖에 있을 수 없으며 또 한 사람이 동시에 몇 개의 부동한 국적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해영, 앞의 글, 400면;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7, 229면.

13) 연변의 행정단위는 1952년 9월 설립 당시는 '연변조선민족자치구'였고 1955년 12월, 자치주로 변경되어 '연변조선족자치주'로 정식 명명되었다. 1952년에는 성, 지구, 현, 향의 4급 민족구역 자치지방을 모두 자치구로 불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장 제5항의 규정에 의해 1955년 12월 18일에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쳤으며, 당기구 명칭도 이전에 '중공연변지위'라고 부르던 것을 '중공연변주위'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14) '6.25'전쟁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족 사회에서 통용되던 '조선전쟁'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년 7월 2일, 당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장 주덕해가 지위의 명의로 중앙통일선전부 리유한부장과 유격평부부장한테 조선국적[15]을 가진 사람을 조선족으로 국적을 바꿀데 대해 요구한 것이다. 최국철은『주덕해 평전』에서 고 류연산의 글 "조선족의 모든 삶의 씨앗을 뿌린 사람-주덕해"의 내용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조선에서 중국으로 온 사람은 일률로 조선교민으로 획분한다는 동북공안부의 국적문제에 대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조선족가정에는 중국공민과 조선교민, 두 나라 공민이 공존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동북에서 살던 사람이 조선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친척방문을 갔거나 병치료를 갔다가 뒤늦게 중국으로 온 사람들과 원래 중국인민해방군에 있다가 중앙의 명령에 의해 조선으로 가서 조선인민군으로 되었으며 조선전쟁이 끝난 후 중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률로 조선교민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원래 중국공산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조선에 가서 조선로동당 당원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왔으므로 당적도 바꾸어야 했다.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인민군에서 돌아온 사람들중 소대장만 해도 1200명이나 된다. 그런데 국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적도 자연히 미해결문제로 남아있었다.[16]

위의 기록은 1956년 현재, 조선족의 국적문제의 복잡성과 미해결된 과제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동북 공안부의 국적문제에 대한 규정이 건국을 분기점으로 건국 이전에 중국 경내에 거주했던 조선인은 일률로 중국공민[17], 건국이후 중국으로 돌아온 조선인은 일률로 조선교민으로 함으로써 한 가족 내의 구성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위의 규정은 역으로 건국초기 조선인의 중국 경내로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며 중조(中朝)[18] 두 나라 사이의 국경관리가 비교적 느슨했고 유동적

15) 이때 '조선국적'은 북한 국적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이후 북한과만 국교를 맺었으므로 건국이후 '조선에서 중국으로 온 사람'은 바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온 사람을 가리킨다.
16) 최국철,『주덕해 평전』, 연변인민출판사・민족출판사, 2012, 400-401면.
17) 중국에서는 국민 대신 공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정부의 공문 관련 내용은 그대로 '공민'으로 쓰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모두 '국민'으로 통일한다.
18) 중국에서 북한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은 '조선'이므로 본고에서는 중국 정부 측 공식 입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북한' 대신 모두 '조선'을 사용한다.

인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건국 후, 1년 뒤에 일어난 조선전쟁의 영향이 컸는바 많은 조선족들이 당시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조선 전장에 나가 조선인민군으로 되었다가 다시 중국에 돌아왔는데 이들의 국적과 당적이 해결되지 못한 채, 조선교민,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된 것이다. 1953년 6월 25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연변에는 조선교민이 만 865명 있었다.[19]

그런데 이런 중대한 국적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1957년부터 반우파투쟁과 민족정풍운동,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등 중국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급박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었으며 1958년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중국 전역은 기근과 생필품의 부족 등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1956년 하반기,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의 국면 속에서 중조 관계는 첨예한 갈등으로부터 봉합으로 나아갔다. 또한 1958년 중국 인민지원군의 완전 철군으로 조선에는 심각한 인력부족(특히 숙련공과 고급 노동인력) 현상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일성은 천리마운동이라는 대중인력동원을 전개하고, 더불어 해외동포귀국사업을 중국, 일본, 소련, 동유럽 등에서 전개하였다. 조선의 해외동포의 귀국사업은 1959-1962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중국 조선족의 조선으로의 역이주 역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재일 조선인 귀국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와도 일치하다.[20]

조선족의 조선으로의 역이주는 중국, 소련, 조선의 합의에 의한 합법적인 이주와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월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간 합의에 의한 합법적 역이주의 신청자가 규정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21]도 당시 연변조선족 자치주 지도층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었지만, 그에 더해 불법 월경은 상당히 엄중한 문제였다. 이 시기 불법 월경은 갈수록 증가세를

19) 최국철, 앞의 책, 400면.
20) 박종철,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 13-3(통권 36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05, 156면.
21) 그런데 대다수의 현에서 조선에 가려고 신청한 가구 수가 규정 수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밑줄: 필자] 예를 들어 해룡, 반석, 영길, 서란 등 조선족 4개 현의 경우 규정된 호구의 2.4배를 초과해 5118가구에 이른다. 같은 글, 167면.

보이고 있었으며 그 수법 역시 “밤에 혼자서 몰래 국경을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으로 발전했다”.[22] 또한 수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1961년 1월부터 1962년 5월까지 조선으로 불법 월경한 전체 조선족은 5만 5천명 정도였고, 이는 조선족 인구의 5% 정도에 해당한다. 그들 중에 길림성 2만 6천여 명, 료녕성 2만 2천여 명, 흑룡강성이 약 7천명 정도였다.[23] 당시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조선족의 조선으로의 불법 월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필자: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불법] 월경의 주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작년(1960년) 우리나라의 농업이 피해를 당해서 올해 초 식량표준[역주: 배급량]이 낮아져서 설날(春节)에는 매일 1인당 3량으로 조선의 식량표준이 높았다. 조선족에게 조국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친족이 조선에 있으며 또한 밀입국과 밀수하는 습관이 있다. 조선에 가서 장가를 가고 취업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현의 지도업무 중에 결점과 착오가 있고 심지어 하부조직이 불순하며 [필자: 상부의] 결정을 관철하지 못하고 민족정책을 잘못 집행하기도 했다.[밑줄: 필자]

위의 기록을 통해 중국 정부가 조선족의 불법 월경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 친족관계에 의한 혈연, 원래부터 갖고 있던 밀입국과 밀수 등 재래적 악습과 장가, 취업, 병 치료, 진학 등 생활적이고 민족 정서적 측면과 관계되는 요인 그리고 정부조직의 잘못된 지도와 민족정책의 잘못된 집행 등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반우파투쟁과 민족정풍운동의 타격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피난이라는 부분이 누락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애초에 개인의 자의적 선택이 불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같은 층위에서 논의될 수 없는 사안이다. 누락된 이 경우를 빼면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두 자의에 의해 선택된 불법 월경이다. 여기에 대해 위의 기록에서 중국 정부

22) 「중국 외교부 당안: 외교부의 조선족 주민이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가는 문제에 대한 보고(关于朝鲜族居民越境去朝问题的报告)」(118-01026-03), 1961.5.24., 131면; 같은 글, 167면에서 재인용.
23) 「중국외교부 당안」(118-01026-01), 13-20면; 이상숙・宋文志, 「1950-1960년대 조선족의 북한 이주와 북중협력」, 『북한연구학회보』 16-1, 북한연구학회, 2012, 366면에서 재인용.

는 “조선족에게는 조국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이 시점에서 중국 공민으로서의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과 중국적 소속감에 대해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족의 불법 월경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원인에 대해서는 1960년 중국의 농업이 피해를 당해 설날의 1인당 배급량이 “3량으로 조선의 식량표준이 높았다”는 세부적 숫자까지 명시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조선족의 불법 월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실은 얼마나 하찮고 근소한 양국 간의 경제적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밀 해제된 중국 정부의 외교부 당안 기록에는 당시 조선족의 불법 월경에 대해 숫자, 월경 시의 노선, 이들의 신분, 불법 월경의 원인 등을 망라하여 전면적이고도 상세한 분석이 진행되어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조선족의 불법 월경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문화대혁명 초기 연변농학원 전투대에 의하면 지식층과 숙련노동자로 볼 수 있는 대학생의 북한 이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949년부터 1964년까지 연변 세 개 고등학교[한국의 대학교]에서 배양한 3,200여 명 졸업생 중 1640명이 ‘나라를 배반하고’ 북조선으로 넘어갔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경제적 곤란이 심했을 때 도주가 극심하였다.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연변 각지에서 나라를 배반하고 외국으로 도망친 자가 28,000 명이나 된다. 1961년의 3개월간만 보더라도 전 주에서 400여 명의 당, 단원 간부가 도망쳤다.”[밑줄: 필자][24]

위의 기록은 문화대혁명 초기, 연변의 한족 위주의 군중조직이던 연변농학원 전투대가 연변에서 이루어진 조선족 대학생들의 불법 월경에 대해 남긴 기록이다. 이는 외교부라는 중국 정부기관의 공식 기록이 아닌 기층 군중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조선족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주류 민족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조선족에 대한 중국의 국민적 정서를 엿볼 수

24) 연변농학원 전투대, 「대 매국 역적, 대 특무 주덕해를 타도하자」, 2-11면; 염인호, 「중국 연변 문화대혁명과 주덕해의 실기: 북한 특무 혐의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429-430면에서 재인용.

있으며 역으로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틀 속에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된 조선족의 국민으로서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1949년 건국으로부터 1964년까지 연변의 3200여 명의 대학졸업생 중, 1640명이 북조선으로 넘어갔는데 이는 이 시기 전체 연변의 조선족 대학졸업생의 50%이상을 넘는 숫자로 농민들의 불법 월경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록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경제적 곤란이 심했을 때 도주가 극심하였다"고 그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불법 월경이 대약진이 실패로 끝난 1959년부터 급속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극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던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시간적으로 북조선의 심각한 인력부족 특히 숙련 노동자로 볼 수 있는 대학생의 부족으로 인한 해외동포귀국사업과 맞물려 이들의 불법 월경을 부추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기록은 "나라를 배반", "외국으로 도망친" 등의 강력한 정치적 용어를 동원하여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의 주된 국민적 정서가 조선족의 불법 월경을 나라에 대한 배반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등 국가가 고난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함께 하지 않고 국가를 배신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주자들이 국가 즉 중국 정부의 배려로 대학공부까지 마쳤고 더욱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선진분자들인 당원, 단원간부들마저 상당수가 도망침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배신감이 매우 컸으며 정서적으로 격앙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 선택이 국가와 연결되었을 때, 결국 그것은 "배반"이라는 엄숙한 정치적 차원으로 승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선족이 국경 밖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택 가능한 또 하나의 국가를 갖고 있음으로 하여 그들이 온전히 중국 안의 국민일 수 없다는 경계적 존재로서 그들의 애매모호함에 대한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 이는 대단히 치명적인 평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국 이후 조선족의 국가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전체가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건국과 함께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국적을 부여받고 모국과의 경계에 열심히 쌓아왔던 국경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자치주 주장 주덕해를 비롯한 연변의 조선족 지도층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주덕해 평전』에 기록된 한 단락의 일화를 참조해볼 수 있다. 일화에 의하면 북조선과 국경을 사이 둔 화룡현 숭선향 광평촌이라는 마을의 한 청년이 국경 너머 북조선의 처녀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물리적으로는 개울물 정도로 옅은 두만강을 건너 마실을 다닐 거리였지만 법적으로는 정작 국경에 의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두 남녀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자 남자가 두만강을 건너 조선으로 가만히 가버린 것이다. 즉 불법 월경을 감행한 것이다. 이는 단지 당시 '유행병처럼 퍼진' 조선으로 가만히 가는 바람의 한 사례에 불과했는데 당시 '조선의 셈평'이 좋아서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의 많은 조선족들이 가만히 도강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당원, 국가간부, 지식계층 등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일이 커지자 국무원, 길림성위 등에서 조사조가 파견되었고 주덕해 등 자치주 간부들도 동행하여 숭선으로 가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주덕해는 국무원과 성위 조사조를 향해 "비법 월경은 그 행위 자체부터가 비법이여서 여기에 대한 재해석이나 판단은 의미가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한 뒤, 그러나 이 문제를 농민의 각도에서 본다면 실은 눈앞의 물질적 이익을 탐내는 농민들의 지극히 이해 타산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성격에 의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경제적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건국과 조선전쟁이후, 북조선의 노동력 부족현황으로 양국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조선족 노동력이 합법적으로 북조선에 이주하기도 했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비법 도강현안을 확대하여 민족화하거나 정치화해서 처벌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변강주민들을 안착시켜야하"며 그 대책과 방안으로 변방건설에 전문자금을 투입할 것을 건의하였다.[25] 이를 통해 주덕해를 위수로 한 자치주의 조선족 간부들이 조선족의 불법 월경문제를 민족적 차원이거나 정치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으며 그것을 극력 경제적 문제로 해석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26] 조선족의 중국 잔류 및 중국 속의 소수민족으로, 국민

25) 최국철, 앞의 책, 395-398면 참조.
26) 실제로 1963년부터 중국 정부는 북조선으로 이주를 원하는 조선족의 요청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으로 편입되는 것이 동북의 120만 조선족이 나아갈 방향이자 생존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주덕해들에게 이 무렵 조선족의 불법 월경은 그들이 구상했던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생존기반과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족의 북조선으로의 역이주 특히 불법 월경을 막고 그들을 최대한 안착시킴으로써 흔들리는 국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당면과제였다. 당시 중공연변주위 정책연구실 부주임 및 중공연변주위선전부 부부장의 요직에 있던 리근전이 이 위기적 상황을 모를 리 없었다. 어쩌면 선전부 부부장이자 작가로서 리근전은 작품을 통해 동요하는 조선족 인민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중국적 소속감을 높여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느꼈을 것이고 이것이 국가와 민족 양측이, 조선족의 민족 간부이자 작가인 자신에게 부과한 시대적 과제이자 요청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민족적 발화'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고 그것은 오히려 중국공산당 측으로서도 상당히 필요한 발화였을 것이다.

3. 소거된 조선반도와 재정의된 고향을 통한 경계 구축

리근전의 『범바위』의 초판본은 그 첫머리에서 광복 직후 정권 부재와 치안 부재의 사회적 혼란과 동란에 직면한 서위자촌 조선족 농민들의 선택의 갈등과 방황을 그리고 있다.

> 일본 놈이 갓 넘어 갔을 땐 해방 맞은 기쁨에 한족 조선족 할 것 없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 후 얼마 안되여서 국민당군이 벌써 산해관을 넘어서 동북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쫙 퍼졌다. 국민당이 오면 조선족을 모조리 잡아 죽인다는 말에 서위자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걷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다. 그 바람에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피난을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다가 길에서 죽느니 보다 차라리 앉아 죽는 편이 낫다고 떠날념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얼마 안되어서 사처에서 토비들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니 서위자 마을 사람들은 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조마조마한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요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나 오히려 북한으로의 이주는 축소되었고 또한 북한의 경제현실에 실망한 북한이주 조선족들이 다시 중국 동북으로 이주한 사례도 적지 않다. 박종철, 앞의 글, 171-172면.

> 온다던 국민당은 안오고 서란, 깡요, 밀강 등지에 팔로군이 왔다는 소식이 쫙 퍼지면서 팔로군에 대한 여론이 자자하였다. 개중에는 팔로군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팔로군을 비방하고 국민당이 좋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것은 공산당 팔로군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간판 밑에 남의 재산을《공산》하고 남의 살림을 파산시키는 것을 업으로 삼는 화적패들이라는 것이였다.[27][밑줄: 필자]

"국민당이 오면 조선족을 모조리 잡아 죽인다"는 소문은 광복 직후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조선족의 특수한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앞서 소설은 "일본 놈이 갓 넘어 갔을 땐 해방 맞은 기쁨에 한족 조선족 할 것 없이 모두 기뻐하였다"는 표현을 통해 조선족 역시 한족과 마찬가지로 피식민자이자 피해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광복의 공간에서 민족단위를 근거로 예고된 조선족에 대한 국민당의 보복적인 정책은 광복이전 위만주국 시기, 한족 내지 중국 경내 기타 민족과는 구별되는 조선족이라는 민족적 그룹의 특수성을 인지시켜준다. 광복이전, 위만주국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이는 또한 역사적 범주의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조선족이 중국 경내 특히 현재 삶의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는 동북지역의 토착민족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외부에서 유입된 외래 민족이며 그 유입이 일본의 동북 침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중국인들에게는 일본인과 같은 가해자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 본토와 조선총독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척식사업 즉 식민 사업 중에서 강제로 실행되었던 '토지수용령'은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증오를 부추겼고 조선인을 일본인과 같은 가해자로 만들었으며 위만주국 농촌의 민족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당시 '만주국'에서는 '토지 수용령'에 의해 이민 용지라는 명목으로 토착의 중국인이나 일부 조선인의 토지를 헐값으로 매수하거나 강제로 빼앗아 일본 개척단과 신규 조선인들에게 분배해서 경작(주로 水田)하게 했거나 수전 경작 능력을 지닌 조선인들은 남겨두고 한족들만 내쫓은 뒤 그 마을의 모든 경지를 조선인들이 수전 경작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만주국의 이민 정책은 실상 식민지적 토지 수탈의 성격을 띠었고[28] 이 과정에서 조선

27) 리근전,『범바위』, 연변인민출판사, 1962, 1-2면.

인 농민들은 중국인들로부터 토지를 약탈해간다는 비난을 듣고 있었다.[29] 토지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중국인들은 일방적인 피해자였다. 이에 비해 조선인 중에는 새로 토지를 획득한 부류와 토지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부류로 갈렸다. 조선인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소설에는 조선족의 이러한 역사성과 특수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 떠나는 사람은 고향 땅과 정든 이웃을 작별하는 것이 서운해서 눈물을 흘렸다.(…)
> 《기어코 가는 사람을 더 말리지는 않겠네만 풍우란설을 곧이 듣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네!》(…)
> 기실 치백이로서는 남들이 이렇게 고향땅을 버리고 떠나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울분이 가슴에 치받쳐 올랐다. 그러니만큼 그는 또 남들이야 어찌든 간에 끝내 고향 땅에 뻗쳐 낼 심산이었다(…)[30]

김치백과 그의 아들 호랑이를 비롯한 서위자촌의 조선족들은 모두 그들의 현재적 삶의 공간인 서위자촌을 고향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광복의 공간에서 그들이 직면한 것은 한족과 마찬가지로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념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방황이다. 이들이 국경 외부의 조선반도에서 유입된 외래 민족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조선반도와 국경은 모두 소거되어버린다. 이는 1953년 발표한 조선족의 첫 장편소설이자 건국 초기 첫 혁명서사인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 묻지 않아도 그 뜻은, 자기네도 이 어설픈 간도 땅으로 이사들어와야겠다는 것이었다(…)
> 그리고는 발바닥 두 장 마음놓고 붙일 제 땅을 가지지 못하면서 그래도 제 나라 땅이라고 안타까웁게 떠나기 싫어서, 그 서툰 철로 부설공사에 맨주먹으로 뛰어들어가 붙어 보려다가-꿈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지, 곡갱이 한 자루로 그래

28) 尹輝鐸,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의 斷想」,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212면.
29) 尹輝鐸, 『滿洲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013, 365면.
30) 리근전, 앞의 책, 1962, 3-4면.

어떻게 여섯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한겨울 고생만 죽도록 하고 결국에는, 제 누이와 매부가 뼈를 묻은 이 땅으로-그들이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금년 농사만 잘 되문 명년엔 꼭 고향엘 나가야지! 조선엘 나가 살아야지!" 하고 해마다 벼르면서도 종내 나가지 못하고 그 고난의 일생을 마친 이 간도, 삭풍 거친 땅으로-이주할 계획을 세우고야 만, 그리고 그것을 자기와 상의하여 보려고 온 외삼촌을 그는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를 생각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영수 오랍누이는 나중 돌아가신 어머니를 여읜 지도 벌써 4, 5년이지만, 어려서부터 받아온 그들 부모네의 영향으로 줄곧 해마다, "명년엔 나간다! 명년엔 나간다!"를 외느라고 언제나 궁둥이가 반쯤 떠 있어서, 빤빤한 터전에 나무한그루 심으려 하지 않다가 작년에야 비로소 울타리 밑에 백양나무 다섯 주와 배나무 다섯 주를 떠다 심고, 거기에 자기들도 뿌럭지를 박고 안착할 결심을 내리었다.[31][밑줄: 필자]

『해란강아 말하라』에서 '간도'는 떠나기 싫은, 정든 고향땅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어설픈', '삭풍 거친 땅'으로 묘사되며 주인공들은 고향인 조선에서의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간도'로 이주해오게 되었다. 이주한 이후에도 이주민 1세대인 주인공의 부모 세대들이 "금년 농사만 잘 되문 명년엔 꼭 고향엘 나가야지! 조선엘 나가 살아야지!" 하고 평생을 별렀던 것처럼 조선은 형편만 나아지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따뜻하고 그리운 고향이었다. 주인공들 역시 그들의 부모들처럼 "명년엔 나간다! 명년엔 나간다!"를 외면서 '간도'에 안착하지 못하다가 중국공산당과 지하로 연계됨으로 하여 비로소 안착할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이처럼 김학철은『해란강아 말하라』에서 조선을, 이주민들이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는 정든 고향땅으로 여과 없이 그리고 있으며 조선족의 이주민으로서의 역사적 특수성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상해와 호북 및 중국공산당 휘하의 태항산에서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에 투신하다가 일본군에 포로 되어 일본의 감옥에서 광복을 맞았고 귀환한 서울에서 다시 38선을 넘어 월북했던 김학철은 실제 연변 내지 동북 조선족의 이주의 역사 및 고난에 찬 동북 정착사, 개척사에 대해 전혀 이해하는 바가 없었다. 그만큼 상해와 무한과

31) 김학철,『해란강아 말하라』, 풀빛, 1988, 20-22면.

태항산은 연변 혹은 동북과는 아득히 멀리 있었고 동북 조선족의 배수진을 친 이주의 역사와 김학철은 멀리 동떨어져있었다. 김학철은 조선전쟁기간 피난차 북경에 머물다가 그의 조선의용군 시절 전우들이었던 자치주 주장 주덕해와 자치주 부주장 겸 선전부장이었던 최채의 반연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연변에 정착하게 된다.[32] 김학철이 연변에 정착한 것은 1952년, "이미 그전에 연변조선족의 해방투쟁사는 종결되었고 그는 조선의용군 출신이라는 또 다른 개인사를 지닌 채 그 역사의 끄트머리에 접합되었던 것이"[33]다.

이런 김학철과는 달리 리근전은 1937년 9살 나던 해, 어머니와 누이동생과 함께 먼저 만주로 와계신 아버지를 찾아 조선을 떠나 중국 길림성 서란현 북대촌에 이주해온 이주민 1세대이다. 훗날 1997년 출간된 그의 수필집 『흘러간 세월』에 실린 수필 「타향살이」와 「처음 본 만주땅」에는 당시 9살의 리근전이 탔던 이민열차 속 풍경과 만주에 처음 도착해 먹었던 첫 끼의 밥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있다. 이처럼 1997년 69세의 나이에도 만주에서의 삶의 첫 시작을 '타향살이'로 기억하고 있는 리근전이 정작 그의 나이 30대 초반인 1962년 발표한 소설 『범바위』에서는 '만주'를 정든 고향땅,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고향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토록 떠나기 서운해 했던 조선의 고향땅은 완전히 망각되어있으며 광복의 시점에서 조선반도로의 귀환이라는 제3의 선택은 아예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986년의 수정판은 이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김치백이는 이튿날아침에 길림시가지에 닿았다. 길거리에는 일본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볼수 없었고 법석 고아대며 오고가는 시위행렬들뿐이였다. 시위행렬에 선 사람들은 저마다 청천백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골목길들에서 나와서는 큰거리로 몰려나가고있었다. 김치백이는 수많은 행렬들속에서 조선사람들로 무어진 대오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고 ≪무궁화삼천리≫를 부르면서 행진해왔다. 옷차림들을 봐서는 거개가 부자들이나 신사들 같았다. 시위행렬속에서는 무시로 ≪대한민국독립만세!≫하는 목갈린 구호소리가 터져나왔다.

32) 물론 그가 귀국을 포기하게 된 이면에는 조선 전쟁 직후부터, 북한에서 김일성에 의해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연안파에 대한 숙청이 놓여 있었다.
33) 김명인, 앞의 글, 244면.

시위행렬이 대통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로동자차림을 한 웬 사나이가 나타나 시위행렬의 선두에 선 인솔자를 눈박아보더니 흠칫 몸을 떠는것이였다. 이어 그 사나이는 주먹을 내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긴 잘한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일본놈앞에서 한자리 해먹던 네놈이 갑자기 애국지사가 됐구나?≫

그 말에 인솔자는 저도모르게 게걸음을 치더니만 인차 진정하고 고함을 질렀다.

≪저놈은 한국의 독립을 반대하는 나쁜놈이다. 때려라!≫

그 인솔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뒤따르던 시위자들이 욱 몰려들어 마구 주먹으로 쥐여박고 발길로 걷어차면서 물매를 안기였다.

(…)

김치백이는 이틀동안 길림시가지를 돌며 이궁리저궁리하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역전에 나왔다. 널다란 역전광장은 조선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늙은 부모들과 어린자식들을 이끌고 이사짐들을 이고지고 먼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맥없이 맨봉당에 퍼더버리고 앉아있었다. 한낮의 땡볕에 땀이 철철 흘러내리는 그네들의 얼굴은 먼지까지 뒤집어써서 때국으로 얼룩졌다. 여기저기에서 갓난애들이 더위를 못이겨 극성스레 울어댔다. 김치백이가 어디로들 가는 길이냐고 물으니 그들은 모두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기다리고있는중이라고 대답했다. 홈에는 화물차가 서있었는데 바곤마다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로 빼곡하였다. 바곤에 비집고 들어갈수 없는 사람들은 지어 기관차꼭대기에까지 기여올라가 있었다. 하지만 기차는 그 자리에 못박힌 듯 좀체로 움직일줄을 몰랐다. 그래서 차객들은 여기저기에서 악마구리 끓듯 기차가 떠나지 않는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고아대고들 있었다(…)[34]

이는 1986년 수정판의 「머리말」부분이다. 여기에는 '태극기', '무궁화삼천리', '대한민국독립만세'[35] 등 조선반도[36]를 상징하는 기표들이 거침없이 등장하며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이삿짐을 이고 지고 한 조선사람들로 붐비는 길림 역전광장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다. 그들은 모두 귀환을 위해 조선으로 출발하는 열차를 기다리는 중인데 홈에 서있는

34) 리근전, 『범바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6, 1-4면.

35) 이때의 '대한민국'은 조선남부와 북부를 합한 조선반도 전체를 가리킨다. 광복의 시점에서의 조선은 아직 분단 이전이었다.

36) 본고에서 '한반도' 대신 '조선반도'를 사용한 것은 광복의 시점에서 아직 분단 이전이었으며 식민지 시기에는 전체를 통틀어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화물차에는 바곤마다 사람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빼곡하였고 일부는 기관차 꼭대기에까지 기어 올라갔으며 악마구리 끓듯 하였다. 이처럼 귀환자들로 붐비는 역전과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찬 귀환 열차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데 이미 1946년 발표된 허준의 중편소설 「잔등」에도 등장한다. 이처럼 리근전은 조선반도를 상징하는 기표와 조선사람들로 꽉 찬 귀환 열차를 통해 이주민으로서의 조선인의 역사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더불어 광복의 시점에서 조선인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선택 즉 조선으로의 귀환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광복 이후 '만주 조선인'의 근 반에 달하는 숫자가 '귀국·귀향'을 택하기도 했는데, 중국 만주로부터 한반도로 귀환한 조선인은 이주민 총 인구의 40%인 70만에 달했던 것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37] 그러므로 1962년판에서 광복 직후 동북 조선족이 직면한 선택의 갈등이 '공산당이냐 국민당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였다면 1986년판에서는 조선반도로의 귀환이라는 제3의 길이 추가된 '삼자택일'의 문제로 변화된 것이다.

리근전은 1958년에 『범바위』의 집필을 시작하여 1962년에 출간하고 1970년대 말에 『고난의 년대』의 집필을 시작하여 1982, 1984년에 각각 상, 하부를 발표한다. 그런데 리근전 자신의 술회에 의하면 그가 원래 처음 구상했고 준비했던 것은 뒤에 발표된 『고난의 년대』이다. 그에 의하면 『고난의 년대』를 쓰게 된 준비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신문 사업을 하던 1953년부터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준비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때 리근전은 신문기자였는데 한번은 서란에서 한 소학교 선생으로부터 "우리 조선 사람이 소수민족으로 된 역사는 얼마나 길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자신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리근전은 조선족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족의 이주사와 항일투쟁사, 벼 재배 역사, 해방전쟁시기의 투쟁사 등에 대해 차츰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리근전은 1958년에 『범바위』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언제든지 조선족 인민의 역사

37) 한상복 · 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1994, 35면.

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장편소설을 써 보겠다고 마음먹었다.[38] 이처럼 리근전이 1953년 당시, 최초에 구상했던 것은 조선족의 이주초기부터 시작하여 항일투쟁시기, 광복 후 중국 해방전쟁시기까지에 이르는 대하소설이었다. 그런데 리근전은 정작 이주초기, 항일투쟁시기 등 1부와 2부를 제쳐둔 채, 1958년에 대하소설의 제 3부에 해당하는 광복 후, 중국 해방전쟁시기까지에 이르는 『범바위』를 먼저 집필한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말, 『고난의 년대』를 구상할 때, 리근전은 초기에 '개간편', '봉화편', '서광편' 삼부작으로 구상하였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2부까지 쓰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족 학계에서도 "리근전의 두 장편소설이 19세기말부터 20세기중반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와 투쟁사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볼 때 (…) 『범바위』를 먼저 쓰지 않고 후에 쓰고 작중인물들도 『고난의 년대』의 인물들이 계속 등장했더라면[이 경우 『범바위』는 『고난의 년대』의 제3부로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완정한 대하소설로 될 수 있었"[39]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리근전은 일찍 1953년 무렵부터 조선족의 이주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그가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었던 조선족의 이주의 역사와 정착사, 개척사 그리고 항일투쟁사는 정작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장편소설 『고난의 년대』에서 그 모습을 대폭 드러낸다. 또한 광복이후 중국 경내의 기타 민족과는 구별되는 조선족만의 특수성의 범주 즉 조선반도로의 귀환이라는 제3의 길은 1986년 『범바위』의 수정판에 와서야 제시된다. 이에 대해 리근전은 1986년 수정판의 '재판 후기'에서 "그때 당시 극좌사상의 영향으로 하여 써넣고는 싶었으나 감히 써넣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태여 넣었다"[40]고 함으로써 1962년판이 당시의 정치적 현실의 제약을 상당부분 받았음을 암시하였다.

이 무렵의 연변은 그 전 해인 1957년에 반우파투쟁이 시작되어 1958년에 끝났고, 1958년에는 전국 문예계와 보조를 맞추어 "수정주의 문예사조"에

38) 리근전, 앞의 글, 1983, 50-51면.
39) 김몽, 「력사의 진실한 화폭—리근전소설의 력사적가치」, 『천지』,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기관지, 1998, 281-282면.
40) 리근전, 앞의 책, 1986, 831면.

대한 비판을 진행하였으며, 1959년에는 이른바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남으로 하여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살얼음판이었다. 전국적 범위에서 대대적으로 발동된 반우파투쟁의 폐해도 심각했지만 그 뒤, 발동된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은 연변에 더욱 큰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다. 반우파투쟁이 이념적 차원의 문제라면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은 민족적 차원의 문제였다. 대(大)한족주의를 반대하고 지방민족주의를 극복하여 새로운 민족 유대를 이룩하고 새로운 생존환경을 마련한다는 초지는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족을 제외한 기타 소수민족 가운데 존재하는 소위 '민족주의'를 척결하는 결과를 낳았다.[41]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은 주요하게 이른바 '자산계급 조국관', 지방민족주의를 선양한 작품, '언어의 순결화' 등을 비판의 과녁으로 삼았는데 이는 조선족 작가들과 민족문학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정치적 '토벌'이었다.[42] 이 운동은 민족문화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는 것과 조선족작가들이 조선족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조선어의 규범화 요구 등에 대해 모두 지방민족주의라고 무단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족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43] 이러한 정치투쟁의 와중에서 "민족문화전통의 계승, 민족력사제재의 취급, 민족정신과 민족감정의 표현, 형식의 민족화 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되었다. 이런 '금지구역'은 '문화대혁명'시기에 이르러 더더욱 삼엄하게 되었다."[44]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근전이 용기를 내어 '민족적 발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외적 상황보다 더 심각한 조선족 사회의 존재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조선족의 역이주와 불법 월경 때문이었다. 이는 리근전 스스로를 포함하여 모든 조선

41) 리광일, 앞의 책, 125면.
42) 조성일・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291면.
43)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의 폐해와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실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조선족 작가들이 조선족의 생활을 반영하는 것마저 지방민족주의로 몰았는데 그 일례로 한 연극단이 '한족의 극'을 '조선족의 생활로 각색한 것'마저 견책하였고 조선족의 전통적인 애정윤리를 다룬 극시 「김옥희와 팔거북」 등을 '독초'로 비판하였다. 조선어 사용의 측면에서 한어와의 융합을 주장하면서 조선어의 규범화를 강조하는 것은 '언어순결화'를 고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연변의 창작에서 제기되는 민족어규범화문제」라는 김창걸의 논문은 민족어 순결화를 고취하는 지방민족주의 언론으로 비판당했다. 같은 책, 292-293면 참조.
44) 같은 책, 294면.

족의 간부들에게 일대 위기였을 것이다. 어쩌면 이는 일찍 광복 직후부터 국내해방전쟁시기, 건국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조선족을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중국공산당 측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문제였을 것이다. 흔들리는 조선족 사회의 존재기반을 공고히 하고 조선족의 불법 월경으로 혼란스러워진 중조 국경을 안정시키는 것은 조선족의 민족간부들 앞에 제기된 최대의 과제이자 중국공산당 측으로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그 과제를 중공 연변주위 선전부 부부장이자 작가였던 리근전이 맡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결국 리근전은 광복 직후 조선족의 선택의 갈등과 방황이라는 역사적 현실성을 민감하게 포착하였고 나름 안전한 '민족적 발화'의 서사 전략으로 조선반도를 소거시키고 고향을 중국 내의 이주지로 재정의함으로써 조선족의 이주민으로서의 성격을 지우고 국내의 소수민족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 조선족 사회와 혈연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있는 조선반도 사이에 경계를 구축함으로써 흔들리는 국경을 견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1959년부터 1962년 사이에 만연되었던 동북 조선족의 조선 즉 북한으로의 불법 월경 내지 역이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조선족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문학적 대응이었다.

4. 조선족의 이념적 선택의 필연성과 국민으로 통합되기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고향땅이 조선반도가 아닌 중국으로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 조선족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이념적 선택이었다. 훗날의 역사적 전개가 보여주다시피 조선족은 공산당의 이념을 선택하며 건국의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리근전은『범바위』초판본에서 이러한 조선족의 이념의 선택과정이 필연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즉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천하를 독점하려고 싸운다는데 백성은 어느 편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동네에서도 이런 문제를 둘러 싸고 론의되였다. 정녕 어느 편이 좋은가?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실상은 그때 국민당을 찬동

> 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치백이가 국민당을 찬동할 수는 없었다. 그는 공산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점에서 마음이 공산당에로 쏠리지만, 자기들의 운명을 꼭 공산당에게 의탁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였다.[45] (『범바위』, 1962, 34면.)

조선족의 이념 선택의 문제가 결코 쉽게 결정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이르게 된 결론임을 보여준다. 공산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면에서는 그들을 따르고 싶지만 자기들 즉 민족의 운명적인 문제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김치백의 고백은 오랜 세월 여러 조대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집권세력이 나타나지 않은 데서 오는 환멸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김치백을 비롯한 조선족 민중들이 결국 공산당의 이념을 수용하고 따르게 되는 선택의 필연성이라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소설에서 조선족의 이념적 선택의 문제는 국공 양당의 대 조선인 정책의 우열을 통한 민족의 길 찾기와 조선족의 계급적 기초 및 조한 두 민족의 공동의 반일투쟁의 역사에 의한 필연적인 성격의 범주로 그려지고 있다.

소설에서 조선인에 대한 공산당의 정책은 “자식에 대한 부모와 같은” 사랑, 당의 정책에 대한 해석과 선전을 통한 설득과 민심 얻기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팔로군에 입대하기 위해 찾아온 호랑이의 옷이 엷은 것을 보고 련장은 밤에 이불 대신으로 쓰는 자기의 유일한 외투를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주며 이에 호랑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그로서는 부모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의 사랑을 처음 받은 것이다. 호랑이는 “나는 난생 처음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느껴 보지 못한 그런 진정한 사랑을 나는 수장 동무와 반 동무들께서 받고 있습니다”[46]고 집에 편지를 보내게 된다. 호랑이의 편지를 받고 공산당과 팔로군에 반신반의하던 아버지 김치백은 급기야 호랑이를 찾아 팔로군 부대로 오게 되고 거기서 련장과 지도원의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되며 아들에 대한 그들의 보살핌과

45) 리근전, 『범바위』, 연변인민출판사, 1962, 34면.
46) 같은 책, 36면.

배려에 깊이 감동한다. 이에 김치백은 “인젠 우리 민족이 가야할 길을 찾은 것 같구나! (…) 내 오늘 평생 처음 인간다운 공대를 받았다 (…) 네 말이 옳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았다!”[47]고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공산당과 팔로군의 이러한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이들 조선족들에게는 더욱 각별하다. 규율을 어기고 싸움터에 따라온 호랑이가 실종되자 련장은 전사들을 파견하여 밤새 호랑이를 찾는다. 부대원들이 그날 밤 호랑이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자 이튿날 다시 전사들을 파견하여 호랑이를 찾게 하며 “산 사람을 못 찾으면 시체라도 꼭 찾아오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족 전사에 대한 중국공산당 측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심과 배려는 호랑이의 아버지 즉 조선족 군중에 대한 배려에서 절정을 이룬다. 호랑이의 아버지 김치백은 마을을 불태운 국민당 군대의 만행에 격분하여 복수를 위해 혼자 마을로 들어갔다가 국민당 군대에게 붙잡혀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무공대의 왕대장은 치백이를 구하기 위해 반장과 호랑이 등을 마을로 파견하면서 호랑이에게 “아버지를 절대 놈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꼭 구해 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각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확인할 수 있다.

> 《다 늙어 빠진게 뭐 쓸 데 있다고 그렇게 념려하여 주시는 거유?》치백의 목소리는 떨리였고 말끝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히였다. 치백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전 생명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었다면 이번 생명은 공산당이 준 것이 아닌가! 예로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지금 자기에게 새 생명을 준 공산당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리라! (…) 이것이 치백의 결심이였다.[48]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 치백은 이번 생명은 공산당이 준 것이라고 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듯이 새 생명을 준 공산당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보답할 것을 결심한다. 그런데 이는 비단 김치백 한 사람에게만

47) 같은 책, 40-41면.
48) 같은 책, 144면.

한한 것이 아니라 광복 직후, 동북에 잔류한 가난한 조선인 백성 모두에 해당한 것이다.

> 느티나무에는 모 주석 초상이 걸렸다. 초상 앞에 큰 상을 차려 놓았다. 아낙네들은 음식을 갖가지 가져다가 놓았다. 본래 일부 사람들이 전과 같이 토신제를 지내자고 하는 걸 치백이가 우겨서 이렇게 하였다. 옛날에 개를 잡고 술을 받아서 해마다 토신제를 지냈지만 덕은 고사하고 쪼들리기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공산당이 오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었으니 이게 다 공산당과 모 주석 은공이 아니고 무엇인가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치백의 말에 찬동한 것이었다 (…)
>
>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치백이를 따라서 모주석 초상 앞에서 민족의 습관 대로 합장 배례를 하여 모 주석께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백이를 따라《영원히 공산당과 모주석을 따르겠다》고 선서하였다. 우렁찬 소리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49]

공산당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국민당에 의해 참혹하게 파괴된 마을을 공산당과 인근 한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도움으로 재건하고 풍요로운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제 토신 대신 공산당과 모주석의 초상을 모시고 모주석께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영원히 공산당과 모주석을 따르겠다”는 선서야말로 동북 조선족이 이념적 선택의 갈등과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찾았음을 보여준다. 계급적으로 각성된 조선족 군중들이 중국공산당을 자신들에게 새 새명을 부여한 부모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중국공산당 역시 자기의 영도 하에 일떠선 조선족 전사를 향해 자기가 친부모와 같음을 강조한다.

> 네가 병원에서 질병과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의 질병을 구하지 못하는 어머니 심정은 몹시 괴롭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네가 질병과 꼭 싸워서 이길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
> 귀여운 아들아! 어머니의 진정한 아들아! 너는 오늘부터 어머니 몸의 진정한 혈액으로 되었다. 오늘부터 너의 몸에서는 새로운 힘이 소생될 것이다.[50]

---

49) 같은 책, 221-222면.
50) 같은 책, 335-336면.

국민당의 감옥에 갇힌 조선족 전사 호랑이에게 공산당이 지하조직을 통해 보낸 비밀 편지이다. 편지에서 공산당은 스스럼없이 호랑이를 아들로, 자기를 어머니로 칭하면서 아들을 구하지 못해 어머니로서 몹시 괴로운 심정임을 토로한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받은 호랑이 역시 "당-나의 친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충실한 아들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생명을 무조건 어머니에게 바치겠습니다"[51]라고 당의 아들로서 무조건 어머니에게 충성할 것을 결심한다. 이처럼 조선족에 대한 공산당의 각종 배려와 정책, 자식에 대한 부모와 같은 사랑과 관심은 조선족들로 하여금 기꺼이 공산당의 이념을 수용하고 공산당을 부모로 섬기고 충성할 것을 결심하게 한다.

동북의 가난한 조선족들이 공산당의 이념을 선택한 이면에는 또 공산당의 정책과 태도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국민당의 조선인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와 정책의 문제가 놓여있다. 우선 가난한 조선족들에게 국민당은 동북으로 오기 전부터 "국민당이 오면 조선족을 모조리 잡아 죽인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는 무서운 존재다. 이는 실제로 광복 직후, 중국 거주 조선인에 대해 적국민(敵國民)인 일본인과 동등하게 처리했던 국민당의 대조선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당은 한인(韓人)을 '적국민'인 일본인과 크게 구별하지 않은 채[52], 전부 송환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집행했다.[53] 국민당 점령지역에서는 조선인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으며 그들의 가옥을 적산(敵産) 가옥으로 몰수하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강제 송환조치를 취했다. 1945년 8월 국민당정부는 동북수복에 관한 東北復員設計綱要草案을 작성하였는데, 한인들에 관한 조항은 제9조와 제16조이다. 제9조 농업 에는 "日僞政府에서 설립한 農・林・木・漁 및 기타 기관을 접수하고 日韓移民의 농장을 접수, 관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6조 「日韓移民」에서는 "日本籍 이민은 일률로 경외로

51) 같은 책, 337면.
52) 국민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한인을 전부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인의 처우문제와 재산 및 산업 처리, 또한 친일성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취급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실행과정에서 지방 당국은 한인과 일본인을 크게 차별하지 않은 채, 敵國民 내지 포로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53) 여기에 대해서는 장석흥,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과 성격」, 『귀환과 전쟁, 그리고 근대 동아시아인의 삶』, 경진, 2011, 56-57면.

축출하며 일본이 동북 점령 시 이주한 한인들에 대해서는 귀환을 명하고 재산은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54] 이 규정들은 국민당 정부가 동북지역 한인들의 산업을 일제의 폭력에 의해 강점한 것이라고 인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55] 그런데 공산당과 팔로군이 동북에서 가난한 조선인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자 국민당 역시 대 조선인 정책을 조정하여 친일 조선인 지주, 부농, 위만시기 조선인 경찰 등과 결탁하게 된다.

> 《이 지방에서 사업을 전개할라면 조선 놈들이 필요되는데요.》
> 《네 그 가운데는 조선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 서위자에 박화선이, 다쌍에 배유민이, 유수림자에 최영관 등 몇몇이 있습니다.》
> 《다 믿을만 합니까?》
> 《믿을만 하죠. 그들은 공산당에 대해서는 천연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제 속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 《그다 이를 말씀이오니까!》 몽둥이는 또 허심한 웃음을 웃어 보인다.[56] [밑줄: 필자]

동북에서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당이 파견한 지하특무 고영민과 한족 지주 한몽둥이의 대화이다. 고영민이 스스럼없이 쓰는 '조선 놈'이라는 표현은 조선족에 대한 국민당의 태도와 정책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국민당에게 있어서 조선족은 필요할 때 이용할 수는 있으나 "제 속을 다 줄 수는 없"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들이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족은 공산당에 대해 천연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친일 지주, 부농, 위만시기 경찰 등이다. 하지만 이들을 100%로 믿을 수는 없는데 그 원인은 '조선 놈'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들 조선인 친일 지주, 부농들과는 착취계급으로서의 공동의 계급적 기초를 갖고 있고 또한 함께 공산당을 반대하는 등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결코 민족의 경계를 넘

54) 「東北復員設計綱要草案」, 『南京第二歷史檔案資料』 全宗171, 卷91, 1945.8; 김춘선, 「광복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해방 후 중국 지역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제2회 귀환문제연구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2003, 21면에서 재인용.
55)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소장, 「東北韓僑産業處理計劃」; 같은 글에서 재인용.
56) 리근전, 앞의 책, 1962, 60-61면.

어서는 연대를 할 수 없다는 데서 국민당의 확고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민족에 대한 기시 내지 배타적인 태도는 그들이 무의식중 내뱉는 말들에서 잘 드러난다. 밀강성에 주둔한 국민당 비적 두목 장련장은 한몽둥이의 마름이자 조선인 친일 부농 박화선의 딸 미옥이를 첩으로 삼았지만 지주 한몽둥이의 첩 왕옥영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옥이에게 질투심을 드러내는 왕옥영에게 《조선 계집이 암만 곱다 해도 중국 계집만 못해! (…)》[57]라고 그의 비위를 맞춰준다. 장련장은 미옥이의 자색에 반해 미옥이를 첩으로 삼았지만 늘 그를 경계한다.

> 미옥이는 방안에서 바깥을 빤히 내다 보다가 남편이 하는 거동에 성이 버럭 났다. 노상 자기를 속이는 것이 불쾌했다. 이윽해서 장가 놈이 방으로 들어 왔다.
> 《저이가 뭣하러 왔댔어요?》
> 《계집들이 건 알아 뭘 해?》장가 놈은 도리여 미옥이를 꾸지람했다.
> 《좀 알면 어때요?》
> 《남정네 하는 일에 참견할 게 뭐람 (…)》장가 놈은 제 흥분에 사로잡혀 미옥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미옥의 시퍼랬던 얼굴이 점점 벌개졌다.
>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엉엉 (…)》하고 마침내 미옥이는 쏘파에 쓰러지며 울음을 터뜨렸다.[58]

장련장은 조선인 마을에 대한 토벌계획을 논의하러 온 한몽둥이와의 대화를 그의 조선인 첩인 미옥에게는 절대 비밀에 붙이며 미옥이는 장련장의 이러한 불신에 화가 나 울음을 터뜨린다. 공동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첩이라고 해도 이민족인 조선족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장련장의 태도에서 이민족에 대한 국민당의 철저한 배타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동북에서 자기들의 지지 세력으로 결집하려고 하는 친일 조선인 지주, 부농에 대한 국민당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이 태생적으로 원수로 생각해오는 가난한 조선족 백성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조선족 백성들이 공산당을 선택하게 된 것은

57) 같은 책, 179면.
58) 같은 책, 288면.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처럼 동북의 가난한 조선인 백성들의 공산당 선택은 국공 양당의 대 조선인 정책의 우열에 의한 결과이지만 그 근저에는 가난한 조선족 백성들의 계급적 기초와 중조 두 민족의 공동의 항일투쟁사가 놓여 있었다.

> 《나는 요새 많이 느꼈소! 이 지방 조선족들도 국내 기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근로하고 용감하며 충직한 민족이요. 그러나 이 지방 사람들은 아직 계급 각성이 부족하오. 자기들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을 자각적으로 택하지 못하니 우리가 책임지고 그 임무를 담당해야 하오. 보는 바와 같이 호랑이랑 얼마나 용감하고 충직한가! 그러나 그 애가 이 면에 있어서는 아직 어리거든요 (…) 많은 사람들이 다 호랑이와 같이 어리단 말이요! 치백이도 역시 그렇지 않우? 그들에게 혁명 교육과 계급 교육을 침투시키는 게 매우 박절하오 (…)》[59]

위의 인용문은 동북의 조선족에 대한 공산당과 팔로군의 평가이다. 근로하고 용감하며 충직한 민족이지만 아직 계급 각성이 부족하므로 혁명 교육과 계급 교육을 통해 그들을 각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동북의 조선족들이 광복 직후, 정권 부재기의 혼란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향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산당을 선택했다면 공산당과 팔로군 역시 그 계급적 기초에 근거하여 조선족을 혁명정권의 지지기반으로 선택한다.

> 《(…) 만약 공산당을 영원히 꺼질 줄 모르는 홰불이라 한다면 이 고장 군중들은 마른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나무가 타오르는 불길에 다으면 곧 불바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지금 홰불은 그 마른 나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불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구에 이 고장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길, 투쟁의 불길이 용솟아 오를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불길은 점차 부근에서 타고 있는 투쟁의 불길과 련계될 것입니다.》[60]

팔로군 대부대가 전략적 후퇴를 한 뒤, 무공대와 서위자촌 민병들을 지휘하여 마을에 침입한 국민당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 무공대의 왕대

59) 같은 책, 127면.
60) 같은 책, 129-130면.

장이 현위에 보내는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공산당과 조선족 백성들의 관계를 홰불과 마른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즉 오랜 세월 일제와 그 앞잡이인 친일 지주들의 압박과 수탈 하에 있었고 지금은 국민당 반동파의 탄압에 직면한 이 고장 조선족 백성들은 마치 불길이 닿기만 하면 곧 불바다로 이루어질 마른 나무와 같이 계급적 원한에 차 있으며 투쟁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동북의 조선족 백성들이 공산당을 선택하게 되는 필연적 원인이자 조건인 확고한 계급적 기초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계급적 기초 외에 조선족이 공산당을 선택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북에서 이루어진 조, 한 두 민족의 공동의 항일투쟁사이다.

> 련장은 언제 조선족의 풍속을 알아 두었던지 사무장을 시켜서 입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술도 받아왔다 (…)
> 《항일 전쟁 때 조선족 동무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조선족들의 풍속을 잘 압니다. 어서 드십시오.》[61]

위의 인용문은 조선족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사와 항일전쟁시기 조선족과 한족이 함께 일제에 대항해 싸운 공동항일의 기억을 호출하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 북부의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한 기근으로 하여 변경 농민들의 '생계형' 이주로 시작되었던 조선인의 동북 이주는 1910년 '일한합병'과 함께 조선 독립지사들의 망명이주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조선인의 동북이주의 흐름 자체가 애국지사들의 '망명이주'로 그 추세가 바뀌어 진다. 이들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은 동북에 조선인 학교를 세우고 군사학교를 세우는 등 조선독립운동세력의 양성에 몰두하는 한편 일제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등 유명한 전투를 벌여 일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곧 일본의 보복적인 '간도대토벌'이 이루어지며 결국 이들 조선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세력은 일제에 의해 궤멸성적인 타격을 받아 대부분이 섬멸되며 그 잔여부대가 중국 관내 내지 소련 경내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1920년대 중반

61) 같은 책, 39면.

이후부터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의 설립 등으로 수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동북 경내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은 1928년 12월의 코민테른『12월테제』로 인한 조선공산당의 해체 및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주의원칙'에 따라 1930년을 전후한 시기 대부분 개인자격으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게 된다. 1930년 5월에 일어난 동만(연변) 전역을 휩쓴 '붉은 5월 투쟁'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각 파벌간의 쟁투와 협애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중국공산당에 적극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62] 그리고 '9.18사변' 직후면, 동북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는 절차가 대부분 완료되며 동북지역의 항일투쟁은 중국공산당의 절대적인 영도하에 이루어진다. 소설은 이처럼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이루어진 조, 한 두 민족의 공동항일투쟁사에 대한 기억과 재현을 통해 동북의 조선족이 30년대부터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항일투쟁에 일떠섰음을 회고함으로써 광복직후 조선족의 중국공산당 선택이야말로 역사적 필연과 연속성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5. 참군과 토지개혁을 통한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의 획득

한 국가의 국민의 자격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은 병역의 의무 이행이다.『범바위』는 조선족의 팔로군에의 적극적인 참군 및 팔로군을 도와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량, 마초 운반 등 간고한 임무를 서슴없이 도맡아 나서는 것을 통해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 《동무는 아직 어리니 한 이태 더 커서 오시오!》 련장은 이렇게 말을 끝내고 나서 무슨 바쁜 일이나 있는 듯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
> (…)
> 사람들은 자기의 발밑을 굽어 보며 웃는 것이였다. 그래서 호랑이도 자기의 발밑을 내려다 보았다. 총 자루가 땅에 끌려 털걱거리였다. 호랑이의 얼굴은 불시에 달아났다. 귀밑까지 붉어 올랐다. 련장이 앞으로 다가 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

62) 楊昭全,『中國朝鮮族革命斗爭史』, 吉林人民出版社, 2007, 225면.

리며

《총키보다 작은데 어떻게 적을 잡을 수 있겠소!》하고 웃었다. 호랑이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당돌히 말했다.

《키는 작지만 남한테 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련장은 소년에게 혁명의 도리를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혁명은 장기적으로 투쟁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에 될 수 없다는 것과 혁명 투쟁이란 꼭 총을 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각기 부동한 힘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었다. 그러고 나서 련장은《그러니 집에 돌아 가서 한 이태 더 커서 오시오.》하고 호랑이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재삼 요구했다.63)

키가 총키보다 작은 나어린 소년 호랑이가 팔로군에 참군하고자 련장을 조르는 장면이다. 참군을 간절히 원하는 호랑이에게 련장은 총을 메 보라고 하면서 총키보다 더 작으니 참군은 아직 이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혁명 투쟁은 꼭 총을 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태 후에 다시 참군하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호랑이를 비롯한 당시 조선족 청년들의 불타는 참군 열의를 볼 수 있다. 역으로 이는 팔로군의 징병제도와 징병과정이 자원에 의한 합리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당의 강제징병과는 판이하게 구별된다. 실제로 “인민 해방군 부대가 밀강에 도착하던 그날부터 청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참군하러 왔다. 그래서 련부 간부들은 일상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참군하러 온 청년들을 접대하느라고 요 며칠째 여간 바쁘게 보내는 터”64)였다. 그런데 처음 팔로군에 입대하기 위해 집을 떠나 팔로군 부대를 찾아올 때 이들 조선족 청년들이 혁명의 도리를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저 막연히 “팔로군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65)는 말을 얻어 들었을 뿐이고 그 말에 마음이 끌려 팔로군에 입대를 결심한 것이다. 팔로군 부대에서의 사상교육을 통해 이들은 팔로군은 가난한 사람들의 철저한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임을 깨닫게 되고 공산당과 팔로군을 따를 것을 결심한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방시키는

63) 리근전, 앞의 책, 1962, 9-10면.
64) 같은 책, 6면.
65) 같은 책, 5면.

팔로군의 목표가 고향땅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목표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당의 동북 해방구에 대한 대거 진공에 직면하여 팔로군이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되자 이를 적 앞에서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한 호랑이는 대오를 이탈하여 집에 돌아온다.

《아버지, 나는 도망쳐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구덩이에 몰아 넣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야밤 도주해왔습니다 (…)》
호랑이로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를 길러 준 고향 땅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66)

어렵게 팔로군에 입대했으나 팔로군의 후퇴로 고향땅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자 호랑이는 주저 없이 팔로군을 이탈하여 고향땅을 지키러 돌아온다. 이를 통해 조선족 청년들의 팔로군 입대는 고향땅을 지키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들은 팔로군이 고향땅을 지키는 정의로운 군대라고 생각하고 용약 참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들 조선족 청년들은 팔로군에 참군하여 고향땅을 지키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적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글피부터 대부대가 지나 가게 된다네. 군량과 마초가 시급히 수요되는데 사흘 안으로 군량과 마초를 다쌓으로 실어 내야겠네. 서위자에 해당된 수자는 군량 50단, 마초 10만근이네, 사흘안으로 다 운반할만한가?》
(…)
사흘 안으로 그 많은 량곡과 마초를 죄다 운반한다는 것은 참으로 간거한 임무였다. 그러나 춘호는 서슴없이 임무를 접수하였다. 그는 군중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군중들은 추기 공세에 크게 고무되였다. 그들은 만난을 극복하고 제때에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67)

이처럼 후방의 조선족 군중들 역시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간거한 임무를 맡아 팔로군의 작전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

66) 같은 책, 84면.
67) 같은 책, 373면.

에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팔로군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만난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성할 것을 결심한다. 해방전쟁에서의 이러한 공헌과 기여를 통해 조선족 군중들 역시 충분한 국민적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군과 팔로군의 후근보장 등 새 정권 창출을 위한 공헌과 기여를 통해 획득 가능한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은 토지개혁을 통한 '땅의 주인'됨을 통해 철저히 확인된다.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은 국공내전의 와중에 동북혁명근거지를 공고히 하고 혁명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북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선족 농민들 역시 기타 민족과 동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아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조선족에게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그때까지 법적으로 '무국적자'였던 조선족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한동안 조선족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였다.[68]

> 《왕대장이 그러는데 이 땅은 다 우리 거라데, 지금 심어 놓으면 가을에 가서 도지도 안내고 막 먹는다데 (…)》
> 《그럼 아저씨는 남의 땅인 줄 알았나요?》봉임이는 치백이가 곧 비밀이나 말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 말을 듣자 그만 웃어버렸다.
> 《아니 이 사람, 그럼 지금까지는 남의 땅이 아니구 뭔가 (…)》
> 《어째 남의 땅이얘요?》봉임이는 전일 남편에게서 얻어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다.《제 손으로 파 일쿤 땅을 놈들에게 빼앗겼다가 지금 다시 찾게 된 거죠 (…)》
> 《참 그렇지! 자네 말이 옳네! 남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된 거지 (…)》치백이는 말을 잠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 《그래 남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게 된건 기쁨이 아닌가? 왕대장이 칠월이나 혹은 추수 후에 토지개혁을 한다구 그러데 (…)》
> 《그야 물론 기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처럼 성의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임이는 전에 남편에게서 공산당은 토지 평등 정책을 써서 땅없는 사람들에게 밭을 나누어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반평생 땅없는 탓으로 남에게 설음받고 굶주리던 봉임이는 은근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지금 그날이 눈앞에 닥쳐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자못 부풀어 올랐다.[69]

---

68) 이해영, 앞의 글, 2015, 296-298면 참조.
69) 리근전, 앞의 책, 1962, 148-149면.

공산당과 팔로군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여 받게 된 조선족 농민이자 농회 간부인 김치백과 봉임의 대화에서 토지개혁이 조선족 농민들에게 가져다준 기대와 희망을 볼 수 있다. 열심히 개간하고 농사 지었지만 지금까지는 남의 땅이었던 땅을 이제 되찾게 된다는 기쁨, 드디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기쁨은 압박 받고 착취 받던 국내의 기타 민족과 일말의 구분도 없는 그저 새롭게 '땅의 주인'된 자의 기쁨일 뿐이다. 국민당이 오면 모조리 죽을 것이라며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떨던 조선족만의 이주민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과 경계는 무화되고 치백과 봉임은 "반평생 땅없는 탓으로 남에게 설음받고 굶주리다가" 토지를 분여 받게 될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땅의 주인'이다. 이민 초기 청정부로부터 강요당했던 '치발역복' 정책, 일제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민당이 취했던 조선 개간민 구축 정책 등 오랜 세월 토지를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국적도 가질 수 없었던 조선인이 드디어 이 모든 서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일처럼 성의있게 해야 한다"고 결심하는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다.

6. 결론

기존의 연구는 1960년대 초반 발표된 리근전의 장편소설 『범바위』를 1950년대 초반 발표된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와 함께 조선족의 초기 혁명서사로서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 초기, 중국내 한 소수민족으로 편입된 조선족이 스스로의 국가적 정체성의 모호함과 혼란함을 극복하고 확고한 국가관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 문학적 대응으로 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관념에서 벗어나 리근전의 『범바위』가 집필된 시점인 1958년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연변에 반우파투쟁,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등 정치적 불안이 팽배해있었고 그와 동시에 대약진의 실패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 등으로 하여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역이주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리근전의 『범바위』는 해방전쟁에서의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를 다룬 혁명서사로

서 1958년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대량적 역이주로 인해 당시 조선족 사회가 처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연변사회에서의 조한 두 민족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나름의 문학적 대응이었으며 리근전은 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학적 대응은 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조선반도에 대한 소거와 고향에 대한 재정의를 통한 경계의 구축이다. 리근전은 소설에서 그 서사 전략으로 조선반도를 소거시키고 고향을 중국 내의 이주지로 재 정의함으로써 조선족의 이주민으로서의 성격을 지우고 국내의 소수민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 조선족 사회와 혈연적 유대를 갖고 있는 조선반도 사이에 경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경을 견고히 하였다. 다른 하나는 조선족의 이념 선택의 과정을 통한 국민으로 통합되기이다. 소설에서 조선족의 이념적 선택의 문제는 국공 양당의 대 조선인 정책의 우열을 통한 민족의 길 찾기와 조선족의 계급적 기초 및 조한 두 민족의 공동의 반일투쟁의 역사에 의한 필연적인 성격의 범주로 그려지고 있다. 세 번째는 참군과 토지개혁을 통한 조선족의 국민적 자격의 획득이다.

이러한 문학적 대응에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반우파투쟁에 이어 민족정풍과 함께 연변전역을 휩쓸었던 1959년의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등 당시의 엄혹했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용기 있는 '민족적 발화'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쩌면 리근전 개인의 용기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의 요청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중국공산당과 리근전이 소속되어 있던 조선족 간부층의 모종 교감에 의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명인, 「어느 혁명적 낙관주의자의 초상」, 『창작과비평』, 창비, 2002.
김몽, 「력사의 진실한 화폭—리근전소설의 력사적가치」, 『천지』,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기관지, 1998.6.
김춘선, 「광복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의 귀환과 정착」, 『해방 후 중국 지역 한인의 귀환문제 연구』,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제2회 귀환문제연구 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2003.
김학철, 『해란강아 말하라』, 풀빛, 1988.
리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3.
리근전, 『범바위』, 연변인민출판사, 1962.
_____, 「『고난의 년대』를 쓰게 된 동기와 경과」, 『문학과예술』,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기관지, 1983.
_____, 「력사를 통한 민족의 넋을」, 『문학과예술』,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 기관지, 1985.
_____, 『범바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6.
박종철,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 13-3(통권 36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05, 156, 171-172면.
楊昭全, 『中國朝鮮族革命斗爭史』, 吉林人民出版社, 2007.
연변문학예술연구소 편, 「김학철선생님과의 문학대화」, 『김학철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염인호, 「중국 연변 문화대혁명과 주덕해의 실기: 북한 특무 혐의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429-430면.
오상순, 『중국조선족문학사』, 민족출판사, 2007.
유준수, 「조선족인민들속에서」, 『승리(조선민족발자취총서5)』, 민족출판사, 1992.
尹輝鐸,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의 斷想」,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212-365면.
_____, 『滿洲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013.
이상숙・宋文志, 「1950-1960년대 조선족의 북한 이주와 북중협력」, 『북한연구학회보』 16-1, 북한연구학회. 2012, 366면.
이해영, 「1950-1960년대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의 두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3, 한중인문학회, 2004, 376-398면.
_____, 『중국 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출판사, 2006.
_____, 「60년대 초반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의 내면화」,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305-334면.
_____, 「중국 조선족의 선택과 조선인 간부들의 역할: 조선족의 장편소설과 조선인 간부들의 회고록과의 대비를 통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285-312면.
_____, 「건국 초기 동북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 『대동문화연구』 11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0, 399면.
장석흥,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과 성격」, 『귀환과 전쟁, 그리고 근대 동아시아인의 삶』, 경진, 2011.
조성일・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조일남, 「중국조선족장편소설발전개요」, 『문학과예술』, 2001.
'주덕해의 일생' 집필조, 『주덕해의 일생』, 연변인민출판사, 1987.
주디스 버틀러 · 가야트리 스피박,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최국철, 『주덕해 평전』, 연변인민출판사 · 민족출판사, 2012.
한상복 · 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1994.

【Abstract】

The Revolutionary Narrative of Korean Chinese in Northest Chin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ir National Identity in 1960s —Focusing on the 1st Edition of Lee Geunjeon's *Tiger Cliff*—

Li, Hai-Ying*

Lee Geunjeon's *Tiger Cliff*, a revolutionary narrative that deals with Korean Chinese' contributions towards the Liberation War, is the literary correspondence of necessity of overcoming the national identity crisis in Korean Chinese society during 1958 and the early 1960s due to their massive reverse migration to North Korea and repairing the relation between Han Chinese and Korean Chinese, and also the way Lee Geunjeon tried to rebuild Korean Chinese' national identity.

This kind of literary correspondence can be observed from the following three aspects. The first one is the establishment of the boundary through eras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definition of hometown. In his novel, Lee Geunjeon used a narrative strategy that erased the Korean peninsula to erase the character of the Korean Chinese as migrants and redefine his hometown as immigrant areas in China to define Korean Chinese as a minority group in China so as to strengthen the bord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boundary between Korean Chinese society in Northeast China and Korean peninsula related with it by blood. The second one is to consider Korean Chinese to be national citizens through the process of their ideological choice. In the novel, Korean Chinese' ideological choice is depicted as an inevitable result of finding the way for their nation by comparing the policies of National Party and the Communist Party towards Korean Chinese and also an inevitable thing related with Korean Chinese' class basis and the common history of the Anti Japanese struggle of Han Chinese and Korean Chinese. The third one is to get national qualification by joining the army and carrying out land reform.

The reason why this literary correspondence can be endowed with important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Ocean University of China.

significance in literary history is that it is a 'national speech' under the harsh political situation that rectification movement and the anti-local nationalist movement of 1959 swept Yanbian area right after the anti-rightist campaign. This may have been at the request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rather than the individual courage of Lee Geunjeon, or it could have been a kind of sympathy betwee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Korean-Chinese cadres to which Lee Geunjeon belonged.

Keywords: Chinese Korean literature, Lee Geunjeon, *Tiger Cliff*, revolutionary narrative, national identity.

접수일: 2021.03.23.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20.